

주일의 말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이성도 안드레아 신부
가톨릭신문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오늘 복음(루카 24,46-53)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사명발현 사화(46-49절)와 승천 사화(50-53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당신의 구원사건을 선포하도록 사도들을 파견하십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 예수 사건,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늘로 오르시는 가시적 승천기는 신약성경 가운데서도 오직 루카복음(24,50-53)과 사도행전(1,9-11)에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들려줍니다. 루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을 마감하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을 승천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승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기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신앙공동체의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복음사가의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신앙공동체의 시기가 시작되었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시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서 승천하신 의미는 주님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니라, 타볼 산에서 계시되었던 영광스러운 변모처럼, 감춰져 있던 거룩한 하느님의 신성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아울러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모

든 이들과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매일 기쁨에 넘쳐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이 드려주는 어둠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 현존하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현존은 당신의 거룩한 변모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총을 통해 우리 자신과 이웃의 삶을 변화시켜 주님께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나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슬픔 속에 놓인 가정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병실에서, 세속이 주는 갖은 고통에 신음하는 다양한 환경 안에서, 우리는 승천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손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은 거창한 말보다 더 힘이 있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주님의 승천을 되새기며 세상에서 그분의 손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홍보주일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날은 제2차 바티칸공의회 of의 가르침에 따라 모든 신자들이 복음 선포와 대중 매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날입니다. 우리 각자가 딛고 서 있는 다양한 사도직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그 뜻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계승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의 숨결인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루카 24,51참조
사도 1,1-11 에페 1,17-23(또는 히브 9,24-28; 10,19-23) 루카 24,46-53.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제44차 홍보 주일 담화문(요약)

“디지털 세계의 사제와 사목: 말씀에 봉사하는 새로운 매체”

올해 홍보주일의 주제는 사제의 해와 때를 같이 하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중요하고도 민감한 사목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날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뉴미디어는 효과적인 사제 직무를 위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화적 변화 속에서, 바오로 사도가 제기한 복음 선포의 도전(로마 10, 11, 13-15)에 적절하게 대응하려면 반드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제는 최신 시청각 자원(영상, 비디오, 애니메이션,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복음을 선포하여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은 전통 커뮤니케이션 수단들과 더불어 대화와 복음화와 교리 교육을 위한 폭넓고 새로운 전망을 펼쳐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계에 참여하는 사제는 미디어를 다루는 솜씨보다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제다운 마음이 돋보여야 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 목자의 현존은, 현대인들, 특히 우리 시대에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속해 있다.”(베네딕토 16세, 교황청

에 한 연설, 2009.12.21.)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말씀은 ‘가상공간’에 펼쳐진 온갖 ‘고속도로’망의 수많은 교차로를 지나다니며 하느님께서 우리 시대를 포함하여 모든 시대에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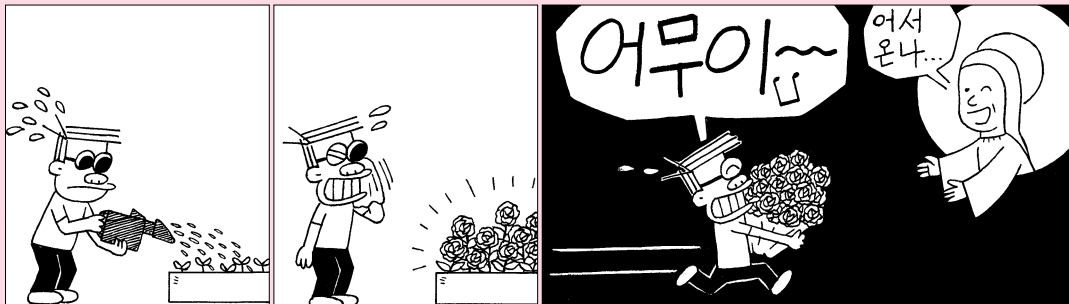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세계에서 목자는 다른 종교인들, 비신자들, 여러 문화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므로, 믿지 않는 이들, 낙담한 이들, 항구한 진리와 절대자에 대한 어렵풋하지만 깊은 갈망을 지닌 이들을 세심히 배려하여야 합니다. 이사와 예언자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을 상상해 보았듯이(이사 56,7 참조), 웹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처럼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사제 여러분, 현대 커뮤니케이션의 특별한 가능성을 현명하게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권고합니다. 주님께서 현대 매체가 열어젖힌 새로운 ‘광장’에서 여러분 모두 열정적인 복음 선포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10년 1월 24일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

나의 정녕 어린 마음을

박성규 엘리시오





오늘의 미사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입당성가

141 죽음을 이긴

화답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512 주여 우리는 지금

영성체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
루야.

파견성가

137 부활하신 주 예수

영성의 향기

:: 모세의 중개기도

구약의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느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친구끼리 말을 주고 받듯이 얼굴을 마주 대시고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모세는 주님과 자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산에 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탄원하였으며 하느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 주고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의 구원을 위해 먼저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응답이며 예수님의 기도를 예시합니다.



:: 시편기도

구약성경의 시편은 큰 축일 때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안식일 마다 회당에 모인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표현합니다. 이 기도는 개인적이며 공동체적입니다. 시편기도는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상기 시키며, 하느님의 약속들을 상기 시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인간의 기도가 되는 책임입니다. 시편은 과거의 사건을 반영할 수도 있으나 참으로 간결한 기도이기 때문에 신분이나 시대를 추월하여 누구든지 시편기도는 언제나 찬미를 불러 일으킵니다. 시편은 찬양이며 노래이며 모든 이가 치는 손뼉이며 노래로 바치는 신앙 고백입니다.

-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하얀 꽃 한 다발



게을러서 집은 물론이고 자신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얗고 아름다운 꽃 한 다발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꽃을 꽃병에 꽂으려고 보니 꽃병이 너무 더러웠습니다. 그는 하얀 꽃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꽃병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꽃병을 깨끗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꽃병이 놓인 책상이 너무 더러운 것 같아 책상도 닦았습니다. 어지러운 방 안까지 말끔히 치우고 나자 그는 이제 자신의 몸도 깨끗이 하고 몸가짐도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음까지 상쾌해졌습니다. 그 후 그 사람의 생활 태도가 변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아주 작은 일로 삶의 태도가 변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가진 하얀 꽃다발을 지금 서슴지 말고 전해보십시오.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당신이 쏟는 작은 마음일 수도 있으니까요.

- 율겨온 글입니다. -

★ 모임행사 ★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 일시: 5.17(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대회합실
- 네이버카페 '대구대교구전례꽃연구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음악대학 협주곡의 밤

- 일시: 5.20(목) 19:30,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전석초대)

2010년 성령쇄신 춘계 대구대회

- 일시: 5.22(토) 10:00~18:00
-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 강사: 표종관 신부, 김선호 형제
- 문의: 551-9111

가톨릭미용인회 밋모임

- 일시: 5.24(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폐제기도의 밤

- 일시: 5.29(토) 19:30, 성모당

★ 성소모임 ★

사랑의 씨앗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5.23(일) 14:00~17:00
- 장소: 하양 수녀원
- 문의: 062-571-3004 / 010-5705-5004

천주성리수녀회 성소모임(경기도 화성시)

- 일시: 5.23(일), 장소: 성당동성당 수녀원
- 문의: 010-3940-3635 / 626-6213
- 성소상담 언제나 가능

★ 피정 ★

스승수제자수녀회 바다피정

- 일시: 5.29(토)~30(일) 1박2일, 회비: 1만원
- 장소: 부산 사도의모후집(대구수녀원 출발)
- 제목: 성모님 품에서... 기쁨 안고
- 문의: 010-2717-0363(싸이susikipcdm)

마리아 영성피정 (성체현시,미사안수)

- 일시: 5.19(수)13:00~17:00, 지도: 강요셉 신부
- 문의: 삼덕성당 422-6691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피정

- 성직,수도 입문과정: 5.24(월)~28(금) 4박5일
- 입문과정: 6.23(수)~27(일) 4박5일
- 문의: 연화리피정의집 054-973-4835 / 011-542-4835

★ 모집 교육 ★

대구가톨릭음악원

반주자 양성과정 수강생모집

- 주1회, 능력별 개인지도
- 문의: 255-4847

가톨릭 복음 선교교육(사랑의선교)

- “내가 먼저 복음화되어 사랑을 전하는 관계 선교교육”
- 일정: 5.22(토) 10:00~23(일) 17:00
- 장소: 정하상교육회관 010-9558-7112
- 대상: 모든 신자(단체장포함)1인11만원

정홍규신부님의 영성테라피

- 일시: 5.29(토) 10:00~12:00(5회기)
- 장소: 푸른평화 예술치료 상담연구소
- 문의: 794-6022 / 010-3513-2225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영어연수

- 일정: 7.18(일)~8.28(토) 6주
- 대상: 초4~중3(35명), 장소: 필리핀 바콜로드
- 문의: 656-6655(www.dgyouth.net)
- 대학생 해외봉사 & 어학연수단체출국모집
- 젊은이 해외 성지순례 (마감6.28(일))
- 일시: 7.26(월)~8.6(금) 이집트, 이스라엘
- 주최: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 문의: 윤마르타 수녀 010-5313-0241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영영어마을

초·중학생 영어캠프 선착순모집

- 캠프기간: 7.26(월)~8.21(토)
- 접수기간: 6.7(월)~11(금)
- 접수: www.gev.ac.kr
- 문의: 054-777-8000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생모집(2010 후기)

- 모집전공: 회화, 도시환경조각, 교회미술, 시각·실내환경·도시환경 전시 디자인, 그리스도교미술사, 문화예술기획
- 원서접수: 5.10(월)~28(금)(www.uway.com)
- 문의: 032-830-7015(www.iccu.ac.kr)

36차 영국·아일랜드 영어연수

- 주관: 마 신부님
- 초·중·고: 7.25(일)~8.15(일)
- 대학생·일반: 6.27(일)~8.8(일)
- 문의: 그린피스 E&T 02-569-1331
- ※ 장기간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톨릭여성교육관 수강생모집 (254-6115)

- 창작사진교실: (월)10:00 5.3(월)개강
- 관광영어중급: (월)10:00 5.3(월)개강
- 오카라나: (월)13:00 5.3(월)개강
- 창찬기술: 5.6(목)19:00, 5.7(금)14:00
- 제대꽃꽂이, 사범꽃꽂이: (금)10:30, 12:30

★ 안내 ★

교구 법원 공시 (253-9550)

- 아래 공시되는 분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 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용진, 조홍래, 김정자(수산나), 이인숙(가타리나)

미 사	일 시	장 소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미사	5월 17일(월) 오전 11시	죽도성당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5월 17일(월) 오전 11시	성동성당

미 사	일 시	장 소
한티성지 후원회 월례미사	5월 17일(월) 오전 11시	한티순교성지
김천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5월 18일(화) 오전 10시	평화성당

눈 안과

원 장 임종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달은병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미소인치과

원 장 이 종 현(프란치스코)
송 선 희(안 나)
범어네거리 교원공제회관 건너편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전화상담 752-7575
(화 · 목 ▶ 야간 진료)

대정 · 향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늘 시원한 약문외과
원 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 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전문 의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s.com
신경대우아파트 복원오거리
친 선 살배육관 시장 대우은행 200m

결혼 상담

27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네거리(서부 초등학교 옆)
류성일(마리아) · 함(논나)

백 신경외과 의원

○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손발 저림 · 진전
○ 요통, 좌골신경통, 목 · 허리디스크, 골다공증
○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 오십견, 근 · 골격질환
원장/전문의 백 윤 일(스테파노)
성당시장 네거리 628-4111

결혼 정보 외사

혼인을 앞둔 교우 자녀와
엘리트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주)코리아알트란
박복순(오틸리아)
범어네거리
코리아 알트란 뉴영남 호텔
그랜드 호텔
황금네거리
●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
TEL 743-4488 FAX 744-1594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선 일 외과 의원
원 장, 전 문 의: 배선익(사도요한)
TEL: 745-6633~4
지하철 2호선 범어역
범어네거리, 수성못방향 → 300m

건강백세 내과

건강검진, 암검진, 내과진료
범어 네거리(752-0141)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출구)
원장 채 희 갑 (바오로)